

청춘, 문화로 몽친다

광주청년네트워크 결성 20·30대 삶의 질 향상 위해 8개 청년문화단체 연대 전국 청년 네트워크 구상도

최근 2~3년 사이 광주에 20~30대가 주축이 되는 많이 청년단체들이 생겼다. 취업하기 위해 스펙을 쌓고,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청춘'이라는 시간을 보내던 청년들이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보자는 단체인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획들을 하기 시작했다. 특정화된 유형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만남을 갖고 단체를 만든 청년단체들은 문화예술, 사회문제 등에 관한 색다른 기획을 내놓으면 지역 문화판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들이 모였다. 지난 2월 발간인 총화와 비영리법인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사)광주청년네트워크는 지역 8개 청년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2월 광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청년단체인 '청년문화허브'(이사장 정두용)를 비롯해 '(주)컬처네트워크'(대표이사 윤현석), '스토리박스'(대표 강수훈), '데블스'(총수 김영민), '(주)에스홀리데이'(대표 김성찬), '점선면'(대표 박형중), 와이즈파크와 파파도리 PD 김성환, 스튜디오 피쉬하이커 작가 최현희 등이다. 정두용, 김영민, 김성찬 씨가 공동 이사장을 맡았다.

정두용 이사장은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년단체는 10여 개 조금 넘는다"며 "2~3년간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해 왔던 단체들이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네트워크를



광주 지역 주요 청년문화단체들이 연대한 '광주청년네트워크' 회원들이 '청년축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만들었다"고 말했다.

강수훈 대표는 "영원한 청년 세대가 있을 수는 없다"며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있는 문화적 토양을 만들어 놓고 후배 그룹들에게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고 네트워크 조직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그동안 청년단체들은 특화된 일도 많이 해왔지만 서로 비슷한 기획이 겹치는 것도 현실이었다. 때문에 좋은 기획들도 큰 힘을 받지 못하고 단발적인 행사로 끝나는 아쉬움을 주기도 했다.

목적은 명확하다. '청년 및 단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단체로 함께 연대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앞으로 '광주 내·외 청년 간 교류 사업', '청년 문제 제기 및 해결방안 개발 사업', '청년문화 기획 전반', '청년 생태계 조성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네트워크를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각자 단체가 진행

했던 기획들을 한곳으로 집중해 특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1=2'가 아니라 단체들을 엮어 '1+1=10'이라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청년단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은 비단 광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광주와 비슷한 시기에 광역시 이상에서는 청년단체들이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약속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 힘든 20대, 30대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에서도 청년단체들의 연대 움직임이 있어요. 다른 광역시에서도 앞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국 청년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정두용)

강수훈 대표는 "당장 올해 광주에서 대학생과 청년들의 축제인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리는데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만드는 '청년 축제'를 기획해 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청년문화허브' 신입회원 모집

청년문화허브는 다음달 30일까지 2015년 제5기 신입회원을 모집한다.

지난 2013년 2월 설립된 청년문화허브는 축제, 공연, 전시, 영화, 여행, 음악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모여 문화기획을 하는 단체다.

다양한 문화 관련 의견들을 나누는 청년문화허브 대표 프로그램인 '유유자적 문화살롱'을 비롯해 문화기획을 배우는 '청년문화기획학교', 청년들이 기자가 되어 이야기를 담는 '청년언론 과격'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개관 시즌 커뮤니티 작품 '질문하는 인간-Paper Q'를 제작한다. 오는 4월에는 유유자적 문화살롱에서 광주 관광을 주제로 섹션별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를 좋아하는 20대 청년이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문의 010-3563-317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제5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50여 일 앞둔 2004년 7월, 당시 비엔날레 재단을 출입하던 기지는 막바지 행사 준비에 한창인 전시팀을 찾았다. 재단이 인재육성 차원에서 선발한 4명의 비엔날레 인턴들을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인턴들은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들이었다. 이들은 비엔날레페막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외국참여작가들의 이메일 교환에서부터 작품제작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전시기획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유독 기자의

레의 전시 주제인 '참여관객제'는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였던 셈이다. 인턴부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앞으로 비엔날레를 통해 배운 경험들을 바탕으로 좋은 작가가 되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그녀가 최근 박뉴스를 전해주었다. 오는 5월 9일 개막하는 2015 비엔날레 본전시인 한국작가로 김아영·임흥순과 함께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이다. 세계 최고(最古)의 비엔날레의 본전시에 광주출신으로는 최초로 참여하는 만큼 광주미술의 위상을 과시한 일대 사건이다. 특히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성장한 '비엔날

'비엔날레 키드'에 박수를

시선을 끈 주인공이 있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옛된 얼굴의 남화연(25·여) 인턴이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4명 중 유일하게 광주출신 아저씨인지 더 반가웠던 것 같다.

사실 그녀는 '뽕뽕한' 스펙을 자랑하는 재원이었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뉴욕 파슨스 디자인학교에서 아트마케팅을, 미국 코넬대에서 조소를 전공한 작가 지망생이었다. 미술평론을 전공한 다른 인턴들과 달리 (작가 지망생인 만큼) 인턴지원 동기 역시 남달랐다.

"조소 작업을 하면서 늘 작가와 관객과의 소통에 관심이 많았어요. 자신들의 예술세계를 독특한 언어로 표현하는 작가들은 자칫 '자기만의 성'안에 갇힐 우려가 있거든요. 아무리 예술적으로 훌륭한 작품이라고 해도 대중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작업실을 벗어나 5개월 동안 '현장'을 찾은 것도 바로 그때 문이었다.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 작품을 기획·제작하는 5회 비엔날

레 키드(Kkid)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 키드가 '접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에도 '하이힐 작가' 이매리 씨와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씨가 참여하기 때문이다.

설치작가 이매리 씨는 제 9회 광주비엔날레에서 박상화, 장한별, 김한열, 강은 작가와 '비밀방'이라는 프로젝트 팀을 꾸려 참여했고, 이에 앞서 이이남 씨는 제 4회 광주비엔날레에서 클레이 애니메이션 작품을 출품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번 광주작가들의 베니스행은 예향의 자긍심을 드러낸 쾌거다. 무엇보다 인재양성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재단으로서 기시적인 비엔날레 효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만하다. 앞으로 제2, 제3의 남화연이 탄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 인재양성은 광주비엔날레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국립나주박물관 '병아리들의 박물관 속 숲 여행'

4월부터 둘째·넷째주 수요일

국립나주박물관(관장 박중환)은 4~10월(7~8월 제외) 매주 둘째, 넷째주 수요일 6~7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숲 생태 체험 프로그램인 '병아리들의 박물관 속 숲 여행'을 운영한다.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은 박물관 뒤편 따따구리 숲에서 땅속 생물과 풀밭 곤충 관찰하기, 나뭇잎의 색깔 변화와 흙에 대

해 알아보기, 나뭇가지와 고무찰흙을 이용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프로그램이다.

숲 체험이 끝난 후에는 박물관 전시유물 관람과 연계해 영산강 유역 마한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다.

신청방법 및 프로그램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나주박물관 홈페이지(<http://naju.mus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뮤지컬 'Loving the Silent Tears' 무료 상영

2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미국에서 제작된 뮤지컬 'Loving the Silent Tears'(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의 무료 상영회가 오는 28일 오후 2시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아카데미상 2회 수상자인 알 카사가 연출한 이 작품은 그레미상을 2차례 수상한 존 세카다, 토니상 수상자 데비 그

래비티, 에미상 수상자 리즈 칼라웨이 등 세계적인 스타들을 비롯해 16개국 유명 배우들이 출연했다.

또 그레미상 6회 수상자인 호르케 칼란드렐리 등을 비롯해 더그 카사로스, 헨리 크리커 등 세계적인 작곡가들이 동참했다.

전석 무료. 문의 010-3056-22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NAVER **단비플라워**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백성) 302-0316-649511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 상가·건물 •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7억(보 4.1억 월 1,260만)
- 산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25억(보2억 월 1,0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 남구 노대동 대지 405㎡ 8억5천
- 서구 마록동 대지 701㎡ 10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서구 금호동 자연녹지 682㎡ 9.8억(신설도로접)
- 광산구 삼도동 1중주거지역 전 6,900㎡ 19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7.9억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000㎡ 14억5천
- 화순 침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 해남군 대흥사부근 한옥민박집 매3.8억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현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경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가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포**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비덕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